

편도편평상피암에서 선행화학요법과 방사선 요법의 치료성적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학교실, 치료방사선과학교실[†]
 왕수전 · 이병주 · 이석훈 · 이현순 · 서철주 · 김동원[†] · 권병현[†]

배경 및 목적 : 편도의 편평상피세포암의 치료는 방사선 조사나 수술적 절제가 주로 적용되었다. 수술적 절제는 수술 합병증과 수술후 기능적인 올 수 있다. 연자들은 편도암 환자에서 선행 항암화학요법후 방사선 조사를 시행하여 그 치료 성적을 보고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 1995년 3월부터 2000년 7월사이에 본원에서 편도편평상피세포암으로 진단받은 33명 중 cisplatin과 5-FU를 이용한 선행항암화학용법 3회와 방사선 조사를 적절하게 시행받은 19명을 대상으로 치료결과, 재발률, 합병증, 생존률등에 대해 후향적으로 조사하였다. Kaplan-Meier을 이용하여 생존율을 구하였다.

결과 : 3회의 선행항암화학요법후 완전관해는 15명, 부분관해는 4명이었다. 선행 항암화학요법에 의해 완전관해가 되지 않은 4명은 T2 2명, T3 2명이였다. 전례에서 방사선 조사를 시행하여 부분관해된 4명중 3명에서는 완전관해가 되었으나 1명에서는 지속적으로 부분관해를 보였다. 3년 생존율을 보면 stage I과 II에서는 100%, stage III와 stage IV에서 각각 80.0%, 83.3%이었다. 재발율은 15.8%(13/19)이었다. 원격전이 1례를 제외한 3례의 국소 및 경부재발례에 수술을 권하였으나 모두 거부하였다.

결론 : 선행항암화학요법후 방사선조사는 편도 편평상피암에서 유용한 치료법임을 알 수 있었다.